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1주일
2021. 08. 22. (나해) 제2282호

제21주보



더운 여름날
가장성당 -
St. Bernard's 2021. 7.

가장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여호 24,1-27,15-17,18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60-69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마음을 드높이



전인병원장 | 손기철 베드로다미아노 신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휴가는 육지로 갈까 섬으로 갈까’, ‘대학과 직장은 서울로 지역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지 말지’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선뜻 속 시원히 대답을 제시해 주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을 텐데, 인생살이 굽이굽이 주요한 시기에는 스스로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저는 하늘을 종종 쳐다봅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다가도 하늘은 제 식구들인 구름들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을 펼쳐 놓습니다. 먹빛으로 한바탕 장대비를 쏟아낸 구름은 합종연횡하며 가없는 푸른 화폭을 달려 거침없이 멋들어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늘은 아낌없이 스스로를 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묻고 기도하는 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잠시나마 속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종종 저는 머리 아픈 숙제를 안고 끙끙거릴 때 미사를 드리면서 문득 그 해답을 얻곤 합니다.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언(無言)의 교신을 하듯 미사 중에 고민거리를 골목시장 좌판처럼 내놓습니다.

예전에 수월하게 비행기를 탈 때 보니 높이 오르면 땅이 작아 보이고, 꼬물꼬물한 움직임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하듯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늘 위로 마음을 드높이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까이 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무거운 짐도 생각보다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하면 차차 한 잔의 커피도, 한 끼 식사도, 한 마디 말도 드높여지고, 하루 동안 만난 일들도 하늘로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네는 가만히 있기보다 흔들흔들할 때 제맛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길에서 미사를 통해 하늘로 마음을 드높일 수 있음은 큰 축복입니다. 그네가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올라가면 마음도 가벼이 그분 뜻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땅에서 당신 뜻을 알고자 하는 염원이 매일 조금씩 분명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도 묻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여호 24,15) **필문**

야곱 II (창세 25,19-35,29)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야곱의 이름이 유래한 ‘발꿈치’(히브리어 ‘아킵’)란 단어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창세 3,15)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셈이지요. ‘둘째 아들’ 야곱과 ‘둘째(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공통점 중 하나는, 두 분 모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극심한 고뇌에 휩싸인 밤에, 야곱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또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일(창세 32,23-33; 루카 22,39-46)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진작부터 마음먹었던(창세 27,41) 에사우가 거느린 장정 400명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 메소포타미아의 임금들을 물리칠 때 거느렸던 장정 318명(14,14)보다도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피해 재산과 가족을 이리저리 나누던 야곱을 두고(32,8-9.17-22; 33,1-2), 어찌 그저 간사하다 탓할 수 있을까요. 한 무리라도 살리려는 갈망의 표현이고, 가장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지요. 장애 없는 갈망은 없고, 갈망 없는 믿음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생에 대한 갈망 속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32,10-13).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께서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시편 46,6)라는 시편 말씀처럼, 자주 성경은 밤을 기도의 때이며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야콧 여울을 차마 건너지 못한 채 홀로 남아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야곱의 그 밤은(창세 32,23-33), 수난 직전 계떼마니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밤을 참 많이도 닮았지요. 가족과 무리 전체의 목숨을 짊어진 가장 야곱

은 그렇게 하느님의 허리춤에 매달려 밤새도록 그분과 씨름하며 애원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흠쳐낸 축복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의지하는 성조 야곱, 그가 진정 선택받은 자라면,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더 간절히 하느님께 선택받길 바랐기 때문일 터이지요.

씨름 중에 환도뼈를 치시고 동이 트니 놓으라 하시는 ‘반칙왕(?) 하느님, 아마도 창세기 저자는 ‘하느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통설에 따라, 날이 밝아 야곱이 당신 얼굴을 보고 죽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지요. 그런 하느님의 염려와 배려까지도 넘어서서 죽기 살기로 하느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은, 그깟(?) 환도뼈 하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분을 쉽게 놓아버리곤 하는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게 합니다. 환도뼈는 앞에 무언가를 잡아당길 때 쓰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뼈라 하지요. 평생 상대방을 끌어당기며 제 입맛에 맞춰 살던 야곱이, 이제는 인생의 살바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성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결국, 그날 밤 씨름의 진정한 승자는 하느님이셨던 게지요.

이후, 야곱 가문은 낯선 신들과 장신구들(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겼고(창세 35,1-4), 하느님은 그의 집안을 손수 돌보시며 이끄셨습니다(35,1-15; 46,1-4). 열심이 욕심으로, 열망이 욕망으로 틀어져 버린 ‘발꿈치’(25,26)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께 내 매일의 살바를 맡겨드려 승리하는 ‘이스라엘’(32,29)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빕니다. **✠**



하느님을 아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현풍본당 | 이정희 미리암

문득 아이들과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언제가 좋은지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반나절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하긴 나의 제안은 뇌가 말랑말랑한 꼬마들도 절레절레 할 주문인데 이미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아이들에게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2천 년 전 고전 정도일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내 안에서 “돈을 쥐서라도 읽혀보자”라는 생각이 올라왔다. 두 아이에게 한 장당 천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식탁 위에 이천 원을 올려놓고 창세기 1장을 읽었다. 돌아가면서 읽고 느낀 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 TV마저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볼만큼 마주할 일이 없고 대화가 부족한 요즘 시대에 생각할수록 분명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로 만나는 시간대가 다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나눔은 창세기 1장으로 끝이 났다. 천 원이 아니라 만 원을 쥐도 안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나마 시간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작은 아이에게 다시 성경 읽기를 제안했다. 웬일로 순순히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부터가 아니라 그때그때 떠오르는 성경으로 구절을 정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느낌, 적용까지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 뻔대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갔다. 그대신 느낌을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최대한 칭찬을 해주고, 성경 읽기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조절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식탁에 코가 닿도록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마태오복음이, 코헬렛이 어디에 있는지 장과 절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찾는 법부터 가르쳐줬더니 이젠 그마저도 재밌어하며 너무 잘 찾는다.

학창시절 밤을 새우며 수없이 외웠던 수학 공식, 역사 공부들은 지금 내 기억 속에 하나도 없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작은 탁자에 앉아 말씀을 읽고 쓰고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미사를 다녀 오시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성경책엔 늘 헌금으로 쓰실 새 지폐가 끼워져 있었고 미처 준비를 못하셨을 땐 바쁘게 지폐를 다림질하시던 모습,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성가를 흥얼거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삼십 년이 흐른 지금도 내 기억 속에서 생생하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에게 의지하는 삶이 나약해 보여 하느님을 부정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겨우 병아리 눈곱만큼 그분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깨닫고 보니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이들의 인생에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판관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리라 다짐한다. 이젠 부르지 않아도 어느새 성경을 들고 오는 아이와 오늘도 저녁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읽고 나눈다.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꽤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 **필문**

홍익만(洪翼萬) 안토니오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양근에서 살다가 1790년을 전후하여 한양의 송현으로 이주해 살았다. 1801년의 순교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사촌 서(庶) 동생이요, 홍필주 필립보와 이현 안토니오의 장인이다.

홍익만 안토니오는 1785년에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김범우 토마스를 찾아가 교회 서적을 빌려 읽었으며,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교회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교리를 연구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였다. 다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폐지할 생각을 가졌으나, 주변 환경 탓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796년 안토니오는 사위 홍필주의 집에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운 뒤, 자주 신부를 방문하여 성사를 받았다. 또 가까운 신자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활동을 도왔으며, 때때로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다. 당시 그의 집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요 집회소였던 '6회'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익만 안토니오는 안산과 여주로 피신해 다녔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문초 과정에서 안토니오는 교우들을 밀고하고 천주교를 배교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체포된 교우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고백하였다. 이때 그가 재판관들 앞에서 대답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었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것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몇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비로소 체포되었습니다. …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따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거한 안토니오는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홍익만 안토니오
(?~ 1802년)



2.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①

복음의 메시지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들 사이에서 언제나 울려 퍼져야 합니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랑과 온유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빛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혼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1코린 7:7)입니다. (『사랑의 기쁨』, 58~61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여름철 적정실내온도(26~28℃) 유지 운동에 동참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2호 정답

1.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 버리라는 임무(곧,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을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 2. 부르짖고, 고행 3.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여 하느님께 죄를 짓고, 그 죄를 아시리아 군대가 찾아낸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4. ②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

**전면
사이버강좌!**

국내 최초 전면 사이버 강좌로 운영되는 일반대학의 단과대학입니다
※ 현장실습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학과와의 오프라인 교차수강 가능

복지서비스학과 | 상담심리학과 | 경찰탐정학과 | 부동산경영학과

DCU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최고의 온라인 강의

등록금 절반 수준의 장학금

1년 3학기(제3년만에 학위 취득)

입학하면 졸업까지 파격적 장학혜택	
유스티노자유대학 장학금	유스티노자유대학 직장인 장학금
유스티노자유대학 산학협력 장학금	유스티노자유대학 가톨릭성직자추천 장학금

2022학년도 수시모집 | 2021.9.10(금) ~ 14(화) • 입학안내 | 053-850-2580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오래도 코로나가 어찌구 저찌구 ...

여보 ...

오해!

아차! 이게 아니지 ...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불렀습니다요 ~

서로 존중하는 마음 ...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3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8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8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3일(월) 11:00 봉곡성당		8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8일(토) 11:00 순례자성당

교육 | 모집 | 기타

주일 성령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9.12(일), 9.19(일), 9.26(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문의: (010)9045-0191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다시 읽는 구약성경(탈출기, 신명기):

수 14:30~16:30(9,1 개강)

심화반(시편과 묵상):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010)8750-6573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 신자

마감: 10.2(토)

문의: (010)3440-0304

2022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기간: 9.6(월)~24(금)

대상: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부산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기간: 9.10(금)~14(화)

내용: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권혁민(루카), (051)510-0705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9월 개강)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가톨릭 신앙과 영성,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영신수련 정기강좌, 구약성경 아카데미,

성경대학, 영적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

<http://center.jesuit.kr>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1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8.3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신청: 8월 31일부터 한 달간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남산동) 강의동 2층 | 수강료: 과목당 7만원(2과목 이상 과목당 6만원) |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화	수	목	금
10:00 ~ 12:00	동양고전 [주역 입문]	종교철학 산책	바오로서간	신약성경입문 영성신학
14:00 ~ 16:00	신학 입문	성경 읽는 재미	역사서	
	교회 음악		그리스도론	
19:30 ~ 21:30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가톨릭서간	

※ **DoM** 카페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룸,투룸 용달이사

환의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의 **서재신** (베드로)·**장주현** (비바안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정각제할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농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선수용
골프채, 가방
공(4피스), 장갑
파우치, 공질계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차관 ☎ 2390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형문(안토니오) 신부
2013년 8월 22일

행사 | 모임

바느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8.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경축_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개국25주년
가스통신부의 보든개살 유튜브 특집
_25살, 이제는 찾아갑니다

: 8.18~9.8(매주 수) 16:05~16:50
그대에게평화를: 9.9(목) 14:00~15:00
주님안에서기뻐하여라: 9.9(목) 16:05

교육 | 모집

황금 성경대학 모집

일시: 9.7(화)~11.30(화)
주간반: 10:00 / 야간반: 19:30
주제: 요한복음
강사: 윤일마 수녀(성바오로딸수도회)
문의: 황금성당, 762-1700

대가대 평생교육원 9월 수강생 모집

발성과(합창/성가교실): 월, 화, 목, 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 금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성, 제대꽃꽃이,
사범꽃꽃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정리수납전문가, 문인화, 섬유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수필입문,
성가반주오르간 / 신청: 254-6115

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입학 및 개강: 10.18(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069-10-003259
문의: 256-9494

앞산밀북카페 가을 강좌 취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시책에 부응
하여 앞산밀북카페의 제반 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문의: 622-1900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채용 | 안내

성요셉재활원 직원 채용

업무: 생활재활교사(장애인 일상 케어)
대상: 57세 미만 남·여(자격사항 없음)
위치: 동고령IC입구(논공위천삼거리 5분)
문의: (054)954-4176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곽재혁신경과
DUKEWAY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병원 진료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적탑병원 4층

코리아알트만
38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담"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80-5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